

2018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 신입학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출신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 작성 시 답란과 해당 문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이를 어길 경우 '0'점 처리함)
- ②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③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④ 제시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⑤ 검은색 필기구(연필, 볼펜, 사인펜 등)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그 외의 색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보기] 그림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대해 논평하십시오.
 (1000±100자, 60점)

[보기]



[크루거(Barbara Kruger)의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1987)]

[가] 나는 오래 전부터 실생활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것임을 알고 있는 의견들을 마치 의심할 것이 아닌 양 따르는 것이 가끔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오로지 진리 탐구에 몰두하고자하기 때문에, 이와 아주 반대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버린 후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신념에 남지 않을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때때로 감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감각이 마음속에 그려주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정하려 했다. 그리고 기하학의 가장 단순한 문제에 관해서도 추리를 잘못하여 여러 가지 오류 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나도 다른 누구 못지않게 잘못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가 전에 논증이라고 판단했던 모든 추리를 잘못된 것으로 버렸다. 그리고 끝으로 깨어 있을 때에 가지는 모든 생각과 똑같은 것이 잠들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때 참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생각하고 나는 여태껏 정신 속에 들어온 모든 것이 내 꿈의 환상보다 더 참되지 못하다고 가상(假想)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금방 그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확고하고 확실하여, 회의론자들의 제아무리 터

<뒷면에 계속>

무니없는 상정(想定)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주목하고 나는 주저 없이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 주의하여 검토하고, 또 내가 신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도대체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숫제 없다고 가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없다고 가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다른 것들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아주 확실하게 귀결된다. 그 반대로 만일 내가 생각하기를 그치기만 하면, 설사 그때까지 상상해온 나머지 모든 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내가 있다고 믿을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나는 내가 하나의 실체요, 그 본질 내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요, 또 존재하기 위하여 아무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다. 따라서 이 ‘나’, 즉 나를 나 되게 하는 정신은 신체와 전혀 다른 것이요, 또 신체보다 인식하기가 더 쉬우며, 설사 신체가 없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온전히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이다.

[나] 도시에서 광고와 더불어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쇼윈도는 유행의 논리를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전체가 획일화되는 ‘합의작용(opération-consensus)’, 커뮤니케이션 및 가치교환이 행해지는 장소이다. 쇼윈도는 상점의 안도 밖도 아니며 사적인 장소도 공공의 장소도 아닌 특수한 곳이다. 이 장소는 이미 길거리의 일부이면서도 그 투명한 유리의 뒤편에서 상품과의 침투할 수 없는 거리(距離)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사회관계의 장(場)이기도 하다. 윈도쇼핑, 즉 유리창에 비치면서 끊임없이 욕구불만을 일으키는 계산된 몽환극(夢幻劇)은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물을 찬양하는 카나카인[하와이 및 남양군도의 원주민]의 춤이기도 하다. 쇼윈도에는 갖가지 상품들이 화려하게 연출되고 신성한 사물인 것처럼 뽐내면서 진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쇼윈도는 단순히 물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G. 라노가 말하는 바와 같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연출되어 진열된 사물에 의해 암시되는 상징적 증여, 쇼윈도 속의 사물과 인간의 시선 사이의 상징적인 무언의 교환은 상점 안에서의 실제적인 경제적 교환으로 이끌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쇼윈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사물 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 서로 간에 보편화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물 속에서 똑같은 기호체계와 가치의 위계코드를 읽거나 인식하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변용은 거리, 빌딩 벽면, 지하철의 환승통로, 네온간판 등 도처에서 매순간 행해진다. 따라서 쇼윈도는 가치형성의 사회적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다. 쇼윈도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사회에 대한 순응성을 시험하고, 개인을 거기에 투영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백화점은 이러한 도시적인 과정의 소위 정점(頂點)이자 진정한 실험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융합되는 사회적 도가니다. 그곳에서는 뒤르켐이 지적했듯이 “집단성이 축제나 스펙터클에서처럼 한결같이 강화된다.”

[다] 인생살이도 그리하겠지만 더구나 징역살이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단출한 차림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번 전방* 때는 버려도 아까울 것이 하나 없는 자질구레한 짐들로 하여 상당히 무거운 이삿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입방 시간에 쫓기며 무거운 짐을 어깨로 메고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짓누르는 또 한 덩어리의 육중한 생각을 짐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머-나길’을 떠날 터이니 옷 한 벌과 지팡이를 채비해 두도록 동자더러 이른 어느 노승이 이튿날 새벽 지팡이 하나 사립 앞에 짚고 풀밭 선 옷자락으로 곳곳이 선 채 숨을 거두었더라는 그 고결한 임종의 자태가 줄곧 나를 책망하였습니다.

십각담등(躡屨擔簦), 즐풍목우(櫛風沐雨). 나막신에 우산 한 자루로 바람결에 머리를 빗고 빗물로 머리 감던 옛사람들의 미련 없는 속탈(俗脫)은 감히 시늬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10여 년 징역을 살고도 아직 빈 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있으면 없는 것보다 편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완물상지(玩物喪志)*, 가지면 가진 것에 뜻을 앗기며, 물건은 방만 차지 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를 틀고 앉아 창의(創意)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이기(利器)*를 생산한다기보다 ‘필요’ 그 자체를 무한정 생산해 내고 있는 현실을 살면서 오연(傲然)히* 자기를 다스려 나가기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그 속이 빈[虛]으로써 쓰임이 되고 넉넉함은 빈 몸에 고이는 이치를 배워 스스로를 당당히 간수하지 않는 한, 척박한 땅에서 키우는 모든 뜻이 껍데기만 남을 뿐임이 확실합니다.

*전방(轉房): 감옥에 갇힌 재소자를 한 감방에서 다른 감방으로 옮김.

*완물상지(玩物喪志):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 데 팔려 소중한 자기의 본심을 잃음.

*이기(利器): 쓸모 있는 재능이나 물건.

*오연(傲然)하다: 태도가 거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담담하다.

<다음면에 계속>

문제 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해 추론하시오. (800±80자, 40점)

[보기]

법률상 입양관계는 전통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부모자식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상 한국에서는 양자와 양자의 친생부모와의 종래 친자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친족관계로부터의 단절이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한국은 민법 개정을 통해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친양자입양은 보통입양과 달리 엄격한 요건(입양자녀는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혼인 후 3년이 경과한 부부가 입양하거나, 재혼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부 한쪽이 상대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하에서만 입양이 인정된다. 친양자입양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 간의 친자관계만이 인정되고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된다.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한 번 입양했던 친양자를 파양하는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하거나 친양자가 패륜행위를 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였음을 이유로 파양청구가 인용된 사안은 추행 등을 원인으로 한 5건(11.1%) 및 폭행을 원인으로 한 1건(2.2%)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9건은 양부모의 이혼 26건(57.8%), 부적응 9건(20.0%) 및 사정변경 4건(8.9%)으로 모두 친양자 제도 도입 당시 전형적인 파양사유로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혼을 이유로 계자(배우자의 친생자녀)를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는 계부(즉, 친양자입양을 한 양부)가 스스로 사유를 들어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한 사건이 전체 26건 중 14건으로 53.8%를 차지한다. 친양자입양 성립 후 친양자 파양 시까지 양친자관계가 존속된 기간은 1년~2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건 45건 중 13건(28.9%)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파양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26건 중 무려 15건(57.7%)이 친양자입양 성립 후 3년 이내에 파양되었다.

[가] 친족관계는 한때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생물학적 또는 결혼 결합이 창출하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친족관계는 핵가족만 남겨놓은 채 현대적 제도들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파괴되었다는 것이 널리 회자된 통설이다. 그러나 상세히 고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견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최소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별거하고 이혼하는 사회에서 핵가족은, 예컨대 소위 재조합적 가족(recombinant family: 가령 이혼한 남녀가 각기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여 이루어진 가족 같은 것)과 연관된 다양한 새로운 친족적 유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의 본성은 전보다 더 많이 협상되어야 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친족관계들은 신뢰의 기초로서 당연시되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신뢰는 협상되고 거래되어야만 하며, 그 헌신은 성적인 관계만큼이나 논쟁거리가 되었다.

[나] 수직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식으로 형성된 가족이라는 집합체를 사회의 기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인 가족이라는 절대 원리는 생물학적이며 심리적인 근거 위에 서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끌려 본능적으로 재생산을 하고, 또 다른 본능에 따라 어머니가 젖을 먹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필요에 근거하여 형성된 기본 가족은 사회의 단단한 핵심, 즉 모든 사회 조직에 대한 저항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 확대나 전이를 통해 형성된 또 다른 사회적 연계를 궁극적으로 생물학적인 질서에 대한 고려야말로 유일하게 근원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 간의 관계, 그리고 한 아이 또는 여러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부모자식관계의 연속성이 가계를 형성하며, 가족의 실재성은 무엇보다도 시간상의 연속성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며, 아이는 성인이 되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제도로 간주되는 가족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속적인 충실함을 보여 준다. 각 개인에게 있어 가족은 가장 유구하고 심원한 감정의 원천이자 물리적인 존재와 도덕적인 개인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사랑, 이해관계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조상과 후손들의 의무감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한 올 한 올 실을 엮는 것과 유사한 자식들의 연결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코제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와 헤어질 때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이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무엇이건 휘감아 버리는 어린 포도 넝쿨처럼 아이는 사랑을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밀어냈다. 개를 사랑했으나, 그것도 죽었다. 그 개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이 겨우 여덟 살인데 아이의 가슴은 벌써 차갑게 식어

<뒷면에 계속>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며, 아이에게 사랑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애석하게도 사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서 느끼고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첫날부터 그 노인을 사랑하게 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을 느꼈다. 바로 개화하는 느낌이었다.

그가 늙고 가난하다는 사실 또한 아이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자연이 장발장과 코제트 사이에 오십 년의 차이를 두는 세월을 만들어 놓았는데, 운명적인 만남이 그것을 메워버렸다. 운명이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그 두 존재를, 나이는 다르나 슬픔으로 유사한, 뿌리 뽑힌 두 사람을 갑자기 묶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서로 완성시켜주었다. 장발장의 본능이 한 아이를 찾고 있었듯이, 코제트의 본능은 한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이들에게 만난다는 것은 서로를 발견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두 손이 처음으로 맞닿던 신비로운 순간, 그것들은 시나브로 맞붙었다. 이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였을 때,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꼭 껴안았다. 코제트가 ‘고아’인 것처럼, 장발장은 ‘홀아비’였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처지에서 장발장은 하늘이 내린 뜻이듯이 코제트의 아버지가 되었다.

ibhak.ssu.ac.kr

<끝>